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5/15℃ 목포 7/15℃ 여수 7/15℃

단기 4343년 (음력 3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61호 1판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건설 패닉

금광기업도 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 '빅5' 중 넷 무너져
F1 경기장·어등산 개발 차질

광주·전남 건설업계 3위인 금광기업마저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8면〉

지난해 1월 대주건설(5위)의 금융권 퇴출 이후 금호산업(1위), 남양건설(2위), 금광기업 등 지역 건설업체 빅5 가운데 4곳이 1년 3개월 사이에 줄줄이 무너지자 업계는 줄도산 우려 등으로 패닉 상태다. 금광기업이 맡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F1경주장 조성 등 지역 대형 공사들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광기업은 신청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2890억 원이지만, 청산가치는 1880억 원에 불과하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기간이 늦춰지면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단 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건설 '빅5' 현황

도급순위 광주·전남	도급순위 전국	상호	2009시공능력 평가액	비고
1	12	금호산업(주)	2조3828억원	워크아웃개시 (2010.1.6)
2	35	남양건설(주)	9244억원	법정관리신청 (2010.4.2)
3	46	금광기업(주)	6994억원	법정관리신청 (2010.4.28)
4	57	우미건설(주)	4683억원	정상
5	75	대주건설(주)	3435억원	금융권지원중단 결정 (2009.1.20)

금광기업은 광주·전남 시공순위 3위, 전국 46위의 지역 대표기업으로 송원학원을 비롯해 (주)TKS, 대아건설,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10여 개의 계열사가 있다.

법정관리 신청의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40억원 중 29일 만기도래하는 140억원의 변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자금 경색은 아파트 분양률 저조와 자금 회수 지연, 자회사인 (주)TKS의 극심한 자금난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금융권에는 외환은행 100억원 그리고 광주은행에 9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273만3000여㎡) 개발사업과 F1 경주장 조성 사업 등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주)어등산 리조트 등 금광기업 계열사는 현재까지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며, 2015년까지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골프장, 특급호텔 등의 설립을 위해 모두 3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반면, 금광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F1경주장 조성사업은 경주장 연약지반처리공사 등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현재는 SK건설이 경주장 시공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정에서 전체 대출금 1980억 원의 17%인 336억원 가량을 금광기업이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금광기업은 광주 CGI센터 조성, 북구장애인재활전문병원 소방설비사업,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2·3공구, 화원~삼포간 국지도 확장 및 포장,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개설, 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 등에 10~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현석·박정욱기자 chadol@

제55회 호남예술제 막 올랐다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린 제 55회 호남예술제 성악 독창(초등부 3·4학년) 부문 참가 어린이들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김민석(송원초 4년), 김신애(삼각초 3년), 이정기(목포선현초 4년), 전나원(동운초 4년), 한동우(월봉초 3년), 이예빈(목포동초 4년), 김소연(신암초 4년), 조용성(신창초 3년),김태윤(풍암초 3년), 전수경(삼각초 4년), 정영우(삼각초 4년), 양지현(금당초 3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확정

광주시장 후보 재심 결과 밀봉 최고위 넘겨
남구청장·여수시장 후보 경선 재심은 기각

민주당은 28일 전남지사 후보로 박준영 현 지사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재심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결과는 조만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재심위는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치러진 여수시장 후보 경선과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해 오현섭 현 여수시장과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남구청장 후보)은 민주당 후보자격을 각각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박 지사에 대한 전남지사 후보 인준 건을 29대 7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쇄신모임 소속 등 비주류 측 의원들이 아름다운 경선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했으나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박 지사가 비교적 손쉽게 후보 인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박 지사와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무위 결정 직후 박 지사는 "당을 살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선 실시를 요구해왔던 주승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고자 했으나 당은 편파적인 경선 방식을 고수하며 출전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어떤 자리에서든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여부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투표용지를 밀봉해 당 최고위원회의로 송부했다. 최고위원회가 재심위 판결을 토대로 광주시장 후보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30일 예고돼 있으나 29일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심위 표결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백재현·이목희 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참가했다. 재심 기각이나 인용은 출석 과반수인 4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유선호 재심위원장은 "선관위의 보고서와 재심위의 자체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표결했다"며 "최종 판단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천안함 희생 장병 영결식

천안함 '46용사'를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영결식이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된다. 〈관련기사 5면〉

영결식은 정부 주요인사, 주한 외국대사와 외국 조문단, 군 장성과 유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식사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및 묵념, 경위보고 순으로 이어진다.

2시간의 영결식이 끝나고 대전 국립현충원을 향해 운구가 시작되면 해군 군악대 합창단 20명이 천안함 용사들이 평소 즐겨 부르던 '바다로 가자'와 '천안함가'를 부른다.

안장식은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다. 현충원 개장 이래 최대 규모의 안장식이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